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2월

“성장 동력 발굴 · 육성 통해 경쟁력 제고” 21개 기본연구과제 설계세미나 가져



우리 연구원은 21개의 기본연구과제 설계세미나를 2월 21일부터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원은 2월 21일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3/3년차)’를 시작으로, 올해 21개의 기본연구과제 설계세미나를 가졌다.

농촌 지역 활성화와 복지 증진 방안 제시

올해 우리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목표를 ‘△농업부문의 핵심역량 및 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농촌지역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제시 △대의 농업협상력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로 세웠다.

연구의 기본 방향은 △농업구조개선과 중장기 비전 연구 △안전 농식품 공급체계와 식품산업 연구 △WTO/DDA, FTA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연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 연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 연구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1개의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기본연구의 과제수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품질제고 등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설계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품질제고에 역점 뒤 연구 추진

6월부터 부서별로 연구중간 검토회의를 가져 연구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또한 연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최종 결과보고 세미나를 갖고 연구를 보강하여 연구를 마무리 한다.

올해 수행하는 기본연구과제명과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3/3차년도)(김태곤)
 △향토음식산업의 육성 방안(이동필)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용광)
-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송주호)
-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판 방안(1/2차년도)(송미령)
- △농업분야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2/2차년도)(박현태)
- △농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마상진)

연구 설계세미나 차질없이 진행

-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1/2차년도)(최세균)
- △EU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임송수)
- △남북한 농업협력 방식의 전환(권태진)
- △농업인의 노후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최경환)
-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1/2차년도)(박성재)
-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어명근)
-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김창길)
- △농촌시장의 구조와 기능 변천 연구(이용선)
-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이계임)
-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 변화와 전망 (김정호)
-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강혜정)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 연구(박동규)
- △농업부문 전망 모형 구축 연구(1/2차년도)(김명환)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최지현)

‘현대 중국의 이해’란 제목으로 김광익 교수 특강



김광익 교수는 초청강연에서 ‘빠르게 지식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강의했다.

연구원은 2월 1일 대회의실에서 월례 조회를 갖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광익 교수가 ‘현대 중국의 이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최정섭 원장은 조회에서 “연말연시에 보고서 발간과 평가준비, 전망대회 개최 등으로 바쁘게 보냈다”고 말하며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원장은 “연구의 안테나 역할을 할 동향분석실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쌀관측업무의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늘 연구원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 올해도 계획한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김광익 교수는 ‘현대 중국의 이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사진과 함께 중국의 국가 규모와 일반 상황을 설명하며, “중국이 빠르게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도시와 농촌, 농업과 비농업 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구조는 지식과 과학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향후 중국의 농업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화와 생활 변화, 농업·농촌의 다양한 변화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객만족경영 컨설팅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컨설팅 최종보고회가 2월 16일 중회의실에서 있었다.

보고회에서 연구원 고객만족경영 실태

에 대한 진단과 고객의 정의, 고객만족경영 체계 확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연구원은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고객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 농업경제학 교육의 미래와 산학연 협력’

연구원은 2월 12일 중회의실에서 ‘대학 농업경제학 교육의 미래와 산학연 협

력’이란 주제로 KREI세미나를 개최, 부산대 이상학 교수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가칭 ‘전국농업경제학과 산학연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공동운명체로서의 산학연 역할분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분과별 협의회 구성과 상시적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벤처보육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가제

연구원 벤처농기업보육센터는 2월 7일 대회의실에서 개소 5주년을 맞아 ‘벤처농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기술발표회’를 가졌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부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에, 농림부 김휴현 사무관이 벤처농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정균한 사무관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연구원에서 보육 받고 있는 (주)꿈, (주)도올F&B, (주)메리트무역과 우수졸업업체인 (주)비알지, 한국인칼균연구소(주), (주)지역활성화센터가 성과발표를 했다. 또한 세원경영연구소 이선호 이사가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란 주제로, 마켓세움 이상한 대표가 ‘오픈마켓 창업과 마케팅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베트남 고위급 공무원 농촌개발연수단 내원



베트남 고위급 공무원 농촌개발연수단이 2월 5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농촌개발 국장과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 부소장 등 베트남 농촌개발 관련 고위급 공무원 5명이 2월 5일 내원했다. 연수단은 최정섭 원장을 예방하고, 정기환 선임연구위원, 허장 연구위원을 만나 베트남 농촌개발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농촌개발연수단은 농림부와 농업관련 기관을 방문,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시책을 청취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

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적용한 농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농촌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산업의 전망과 과제

정민국 연구위원

한우산업에 있어 2007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협상,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에 대한 위험등급 판정 결과는 향후 국내 한우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5월로 예정된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여 미국산 쇠고기 교역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경우 하반기부터 국내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산을 포함하여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쇠고기 생산량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입식 과열로 송아지 가격 큰 폭 상승

지난해 1월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하반기에 세 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으나 뺏조각이 발견되어 전량 반송폐기 처분된 바 있다. 한우농가의 사육심리가 다시 고조되고 송아지입식 열기가 높아져 지난해 하락 하였던 한우 송아지 가격은 올해 1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송아지 입식 대기수요도 많아 2월 현재에도 여전히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쇠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한우가격 전망이 밝지 않다. 지금의 과열입식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절반규모로 줄어들었던 한우우 사육두수는 소비회복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산지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2003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 주었다. 지난해 말 한우우 사육두수는 다시 200만두 시대에 진입하였다. 지난해 인공수정 실적증가로 2007년에도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우 사육두수 증가로 올해 쇠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수입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국제가격 하락과 환율하락으로 쇠고기 수입 유인이 커진 상황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급량 증가로 한우가격 하락 전망

쇠고기 소비량도 가격하락과 소득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6.8kg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2년 8.5kg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향후 쇠고기 소비량의 회복속도는 쇠고기 공급여력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 증가속도보다 공급량 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가격하락은 불가피하다.

2007년 한우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의 크기이다. 2007년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 폭은 한·미간 쇠고기 검역 기술 협의 결과와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쇠고기 협상결과에 따라 지금은 30개월 미만 소를 도축한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이 가능하지만 만약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60%이상을 차지하였던 갈비가 수입될 경우 국내산 쇠고기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한우사육두수 증가속도가 빠르다. 국내산 쇠고기와 일정한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올해부터 반입될 경우 한우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우가격이 당분간 조정을 받더라도 한우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차별적으로 선호될 경우 소비증가에 따라 한우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종사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분간 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우가격

은 하락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우농가의 송아지에 대한 과열 입식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과열 입식을 자제하고 입식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기 조기 비육출하를 자제하고 한우 거세를 통한 장기비육으로 고급육 생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2006년 한우 거세우 1등급 출현율은 71%이며, 도축두수 중 거세우 비중은 25%이다. 거세우 비중은 2005년보다 6.5%p 감소하였다. 이는 그 동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품질등급간 가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고급육생산에 대한 유인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수급안정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급육 생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품질을 바탕으로 한 한우소비의 시장차별화는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고급육 생산으로 소비기반 구축

한우 생산비 절감노력도 필요하다. 비육우 생산비 중 송아지 입식비가 49%, 사료비가 26%이다. 송아지 생산비 중 사료비가 38%, 고정자본이자가 26%이다.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당 고정자본이자는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절감되겠지만 사료비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 협상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우고기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한 걸음씩 쌓아나갈 때 한우산업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우산업 종사자들의 자신감 회복과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R**



중국 2007년 '1호 문건'의 의미와 중국농업

정 정 길 연구위원

중국 정부가 새해 최우선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문서인 '1호문건'이 4년 연속 농업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2004년 '농민의 수입 증대 촉진', 2005년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제고', 2006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이어 올해는 '농업 현대화의 적극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을 주제로 채택하였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농업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농업과 농촌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의 실업인구 급증과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 가속화, 농업용수 부족 등 농업부문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해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삼농문제 해결의 강한 의지 표명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삼농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는 것은 당연지사로서 여겨진다.

2007년 1호문건이 농업 현대화를 주제로 삼은 것은 농업도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탈바꿈해야만 경쟁력을 높여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농업이 풍요로워야 국가 기초가 튼튼하고, 농민이 부유해야 나라가 융성하며, 농촌이 온건해야 사회가 안정된다. 따라서 삼농 업무를 강화하고, 농업을 현대화시키며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는 일은 과학적인 발전론의 전면적인 실천과 사회주의 화합사회 건설의 필요조건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시키는 중대 임무이다."라는 문건의 서두는 중국 정부의 농업관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주창하는 현대농업의 핵심은 과학화, 특징은 상품화, 방향은 집약화, 그리고 목표는 산업화로 요약하고 있다. 중국 농업부의 한 관계자는 다수확, 고품질, 고소득 및 농촌생태환경보호가 현대농업의 4대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과학화, 상품화, 집약화 및 산업화

2007년 1호문건은 삼농문제 해결 방안으로 모두 8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삼농에 대한 투자 강화와 현대농업 건설을 촉진하는 투자보장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농민과 정부 모두 농업부문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종자 및 농기계 구입보조 등 농업 지원을 확대하며, 농업위험 예방체계를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금우대정책을 통해 기업이 농업·농촌에 기부나 공공투자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농업기반 구축의 가속화와 현대농업의 설비 및 장비 수준 제고이다. 이는 농업 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의 낙후된 생산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천 방안으로는 수리시설 건설 강화, 농경지 토양의 질 향상(옥토공정), 농촌 청정에너지의 개발, 식수·도로·전기 등 농촌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농업과학기술 개발의 추진과 현대농업 과학기술의 버팀목 건설 강화이다. 농업과학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절약형 농업기술의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농업기계화를 강화하고, 농촌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발과 현대농업의 산업체계 발전이다. 현대농업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식량생산의 생산성 향상, 양식업(축산과 수산업)의 발전, 특화농업의 발전,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산업화 발전 강화, 비

료·사료·생물연료 등 생물산업 발전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농촌시장체계의 완비와 농업 현대화를 위한 물류산업 발전이다. 실천 방안으로 농산물유통시설 건설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농산물 수출입 조절 강화 및 농산물 유통주체의 다원화 등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새농민 육성과 현대농업 건설의 인재풀 양성이다. 전업 대농·농민전업협동조직·용두기업·집단경제조직 등 농업 현대화 경영주체를 육성한다. 농민의 이농 및 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료·정보화 등 농촌사회사업을 발전시키며, 농촌 공공서비스 인력의 능력 제고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삼농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곱째, 농촌종합개혁의 강화와 현대농업 발전 추진 체계의 구축이다. 농촌의 행정·교육·금융체계 개혁, 농촌의 채무 청산, 농민전문협동조직의 발전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여덟째, 농촌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와 현대농업 건설에서의 실효성 확보이다. 삼농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조화로운 농촌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한 8가지 의견에 '현대농업'이란 용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2007년 1호문건의 핵심은 농업현대화에 있음을 의미한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 0.5ha의 영세한 영농규모를 가진 중국이 농가 경제를 어떻게 일으키고 농업을 어떻게 현대화 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취임한지 올해로 4년째이다. 결국 후 주석이 취임 4년 내내 삼농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에 두어 왔다는 얘기다. R

한·미 FTA 7차 협상 동향과 향후 전망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7차 협상을 끝낸 한·미 FTA 협상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협상 출범 초기의 계획을 고려할 때 3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8차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 수 기준 높은 개방 수준에 접근

8차 협상을 전후로 다양한 형태의 실무급 및 고위급 접촉이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8차 협상은 실무급 협상에서 결정이 가능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8차 협상 이전에 진행될 실무급 및 고위급 접촉이 8차 협상과 나아가서는 협상 타결 여부를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협상과 관련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협상이 어느 정도나 진전되었나 하는 점이다.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품목 수는 모두 1,531개이다. 이 가운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대부분 7차 협상전에 개방계획에 합의하였거나 합의에 가까운 의견접근을 본 상태이다. 따라서 7차 협상에서 다루어진 품목은 지난 여섯 차례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300여개 품목이다.

7차 협상에서 품목별 개방 계획에 합의한 품목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감안하면 아주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시장개방에 대하여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거나 시장개방 여부에 대하여 상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위급 협상으로 넘겨질 품목은 100여개 정도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6~7% 정도가 고위급 협상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개방 수준은 현재

상태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맺은 FTA에서는 전체 품목의 30% 가까이가 실질적으로 시장개방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고위급 협상으로 넘겨질 100여 개 품목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시장개방에서 유보하면 교역액 기준 개방 수준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고위급 협상에서 다루어질 민감 품목도 상당부분 시장개방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민감 품목은 대부분 구체적인 시장개방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협상은 3월에 개최될 8차 협상 또는 고위급 협상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품목을 추정해 보면 곡물류 가운데 콩, 감자, 과일류 가운데 사과, 오렌지,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등이 유력하다. 그 밖에 천연꿀이나 인삼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품목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거나 잠재적으로 교역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감 품목의 개방계획은 긴급수입제한조치(SG)나 수입쿼터(TRQ)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민감 품목을 개방하게 될 경우 최소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세철폐보다는 수입쿼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 품목의 협상은 SG나 TRQ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협상이 타결까지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미국은

아직도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배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은 일부 민감 품목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계절관세와 동일 품목 내에서 용도별 시장개방의 차별화 등 창의적 접근 방식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입장 고수

일부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국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시장개방 일정이 장기에 해당되는 품목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으로 수출 증대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출 기회의 보장 차원에서 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쿼터는 그 크기에 따라서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장기 시장개방이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실무급 협의(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전자메일 및 유선통신 등)와 고위급 협상, 8차 협상 등이 이어질 것이다. 3월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는 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협상 타결을 위해서 고위급 협상이 불가피하다. 농업분과의 고위급 협상은 3월 5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협상 타결 수준과 의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8차 협상이 개최될 것이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 위해서는 8차 협상에서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중국 농업의 두 얼굴

김 태 곤 연구위원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그 존재감이 독보적으로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나치게 농업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있다. 고도 경제성장과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이후 급속한 시장개방이 함께 작용하여 농업과 농촌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와 생산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 소비와 국내 생산간 격차 확대

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4년 연속 농업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채택하였다. 핵심 과제를 보면, 2004년 1호 문건에서는 농민소득 증대였고, 2005년은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력 제고, 2006년은 중국판 새마을운동인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이었다. 3년간 농민,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국력을 총동원하였다. 그리고 2007년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농업 현대화를 중시하는 등 소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성과를 보면 각종 조세공과금의 감면과 직불제 등을 통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도농간 주민 1인당 소득 격차는 2001년 2.90배에서 2003년 3.23배, 2005년 3.22배 등으로 일단 확대기조에서는 벗어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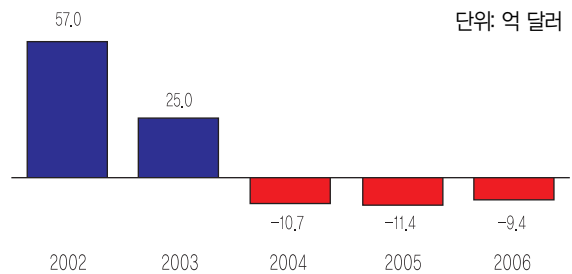
그러나 영세한 생산구조나 시장질서의 미확립 등으로 농산물의 수요와 생산간의 괴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2006년도 농산물 순수입량은 대폭 늘어났다. 대두, 소맥 등 식량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역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품은 대두로서 2006년도 수입량은 2,800만 톤에 달하며, 쌀과 옥수수 수입량도 각각 72만 톤, 6만 톤에 달한다.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2002년에는 1,50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310만 톤으로 줄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옥수수는 최근 연료용이나 사료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 지난해에는 3월부터 9월까지 수출 규제를 실시하였다. 10월에 일시적으로 수출재개를 하였으나, 수급 불안으로 다시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옥수수 재고율은 WTO 가입 이전인 2001년 68.9%에서 2006년 23.7%로 급감하고 있다. 대두 재고율은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13억 인구의 밥상안보에 간간힘이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 5년만에 무역액은 3배, 무역수지는 7배로 확대하면서 세계 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농산

물 무역은 일본과 한국의 뒤를 잇는 '동아시아형'이다. 곡물의 대량 수입국이 되면서 농산물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은 57.0억 달러의 농산물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적자로 전환, 2006년까지 3년 연속 10억 달러 전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중국 농업의 그림자이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추이




자료 : 중국 농업부

반면에, 채소와 과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도 채소 수출량은 신선·냉동, 가공, 건조채소를 포함하여 733만 톤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중국 채소 생산량의 1.3%에 불과하기는 하다. 주요 수출 상대국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채소산업 등은 수출 증가

대일 수출은 168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2.2% 감소하였다. 감소 원인은 일본이 검역제도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의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24.3% 증가한 72만 톤, 금액으로는 31.8% 증가한 3.9억 달러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다.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체 채소 수출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가의 수출전략 덕분이다. 이것이 노동집약적인 중국 농업의 강점이다.

중국은 농산물 무역구조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쌀을 제외한 곡물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면서 채소는 자급하거나 일부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등 왜곡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주식은 주로 북미나 남미에 의존하고, 채소는 극히 소량을 수출하면서 한국이나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중국 농업의 양면성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도시민 88.4%, '농업 앞으로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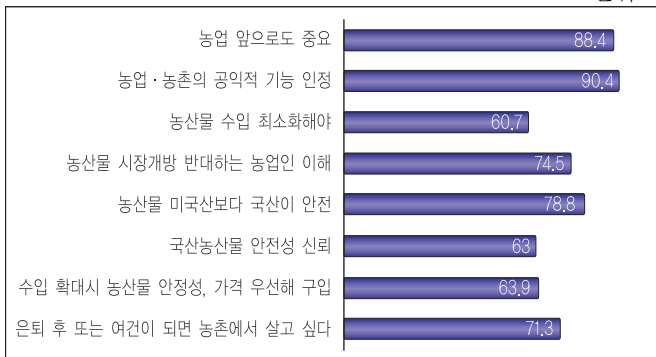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시민 1,500명과 현 지통신원 농업인 857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도시민 88.4%가 '농업은 앞으로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농산물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시민도 60.7%로 집계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이를 74.5%가 '이유있는 태도로 이해한다'고 응답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반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견해는 14.5%에 그쳤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9명(90.4%)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비용 추가 부담에는 52.8%만 찬성 의사를 밝혔다.

도시민 조사결과 주요 내용

단위: %



도시민-농업인 개방대책 접근방식 차이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시민은 농업의 체질개선을, 농업인은 농가 소득보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민은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51.3%)을, 농업인은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보상(49.7%)을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피해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도시민은 '간접보상'(53.2%)을, 농업인은 '직접보상'(49.8%)을 꼽아 농업정책 추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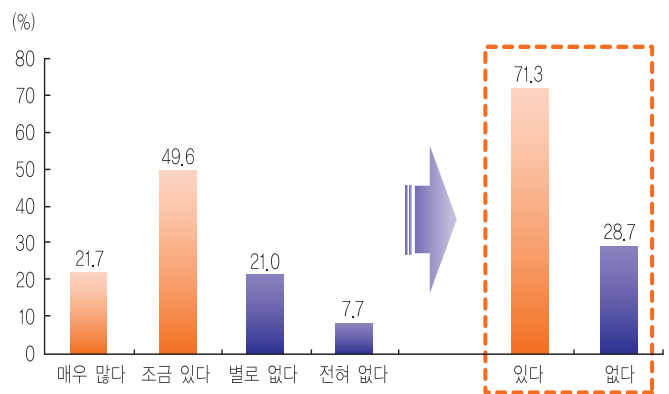
도시민 10명 중 7명, '은퇴 후 농촌에 살고 싶다'

도시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해 3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14.8%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농업인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25.4%, 삶의 질 수준 만족도는

9.3%에 그쳐 도시민과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도시민 10명 중 7명(71.3%)은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해 유인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국산농산물이 미국산보다 안전' 78.7%

도시민 78.7%는 국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3.0%가 국산농산물 안전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도시민은 또 채소, 육류, 곡물을 구입할 때는 안전성을 무엇보다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일의 경우에만 안전성(41.9%)보다 맛(45.0%)을 우선해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농촌지역 복지예산 증액 75.4% 찬성

도시민 86.5%는 농촌지역의 복지 수준을 감안해 도시보다 우대하는 별도의 농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농촌복지 예산 증액 필요성에도 75.4%가 찬성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업인 개방대응 자구노력 구체적으로 변화

농업인들의 개방에 따른 자구노력은 더욱 구체화되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응답이 2004년 조사보다 25.9%p 감소한 18.3%인 반면, '품질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습득(25.2%), 농외소득 발굴(20.5%), 대체작목 전환(17.4%), 농사규모 확대(9.7%)'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언급한 응답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김동원 부연구위원>

“부서별 업무혁신보고회 가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2007년 업무혁신보고회'를 2월 13일과 14일,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연구원은 올해 부서별 업무혁신보고회를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는 2월 16일 각 센터 회의실에서 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올해 업무혁신보고회는 기존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업무를 제안하고 토론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연구부서는 올해 수행하는 과제와 사회·정책적 의제에 대한 연구수요 대응, 대외협력 및 연구네트워크 강화, 국제세미나 등 주요 행사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연구지원부서는 업무 개선 방법과 혁신과제의 발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최정섭 원장은 혁신업무보고회를 통해 나눠진 결과를 연구와 업무에 반영하여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성장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원장, 농촌공사 임직원 대상 특강

최정섭 원장은 2월 9일 한국농업기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했다. 또한 2월 13일 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에서 한국농촌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7 농업전망'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연구진 동정

△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2월 7일 의성군청에서 열린 의성군 농산업플러스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김병률 연구위원은 2월 21일 보은 알프스청소년수련원에서 한농연 충북도연합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세계 농업의 흐름과 대응'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2월 8일 농협설악연수원에서 열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공무원 혁신연찬회에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과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태곤 연구위원은 2월 8일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소득증대 방안'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송미령 연구위원은 2월 9일 순창 복흥면사무소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박문호 부연구위원은 2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FTA/DDA 이후의 과수산업 발전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2월 23일 대전 베스트웨스턴 레전드 호텔에서 농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일류 수급 동향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마상진 전문연구원은 2월 15일 한국농촌공사가 개최한 농촌 지역개발 교육 워크숍에서 '농촌지역개발 교육의 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태영 연구원은 2월 5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O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의 친환경 농업'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조직위 사무국 현판식



우리 연구원과 한국농촌사회학회는 2월 26일 연구원에서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가졌다.

2008년 7월 우리나라 KINTEX(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세계농촌사회학대회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두 기관은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연구원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에는 연구원의 정기환 선임연구위원, 사무국장에는 허장 연구위원을 위촉, 활동에 들어갔다.

현판식에는 최정섭 원장을 비롯하여 학회측에서 김태현 회장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중성 회장, 고려대 김철규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세계농촌사회학대회는 각국의 석학들 1천여 명이 모여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학술 토론을 하는 모임으로 4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소중한 자료를 찾습니다

2008년 4월 1일, 우리 연구원이 설립된 지 30년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빛바랜 사진은 물론 연구원 생활을 하며 갖고 계신 모든 것이 소중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연구원의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도약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연구원 30년사 편찬위원회 간사 정민국(02-3299-4263)과 조태희(02-3299-4226)에게 연락 주십시오.